

조선 시대 활인서 연구 - 연혁 및 상비처방을 중심으로

박훈평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A study of the Office for Saving Lives (活人署), a government office in the Joseon, through its history and use of a standing prescription

Hun-Pyeong Park

Dept. of Medical Classics & Medical Histor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 Shin University

The Office for Saving Lives (活人署) (OSL) was the office in charge of the treatment and relief of the poor in the Joseon Dynasty. This study disputes prior scholarship on the OSL by analyzing the use of a ready-made prescription and by focusing on the personality of the OSL's medical institutions.

The work of the three government offices, the Office of Great Mercy (大悲院) (OGM), which was the formal office of OSL, the Office of Benefiting People (惠民署) and the Office of Aiding Life (濟生院), overlapped in the area of relief of the common people. But OGM was different from the other two in that it was not a purely medical office, had no educational function, and did not manage medicine. By analyzing a standing prescription, this article argues: 1) Heojun's influence on the composition of a standing prescription is absolute. 2) Epidemic warm disease (溫疫) was a major social problem in terms of emergency medical care at the time. 3)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treatment of epidemic warm diseases became more sophisticated than the previous era.

Key words : Korean medical history, Office for Saving People, epidemic disease, ready-made prescription, Office of Great Mercy, Office of Benefiting People

I. 서론

조선 시대의 활인서는 고려 시대의 구제기관인 東西大悲院을 기원으로 한다. 조선은 고려의 개경에 있던 동서대비원 제도를¹⁾ 계승하여, 1392년(태조 1) 처음으로 관제를

정할 때 한양에 동서대비원을 두고 예조에 속하게 하였다.²⁾ 동서대비원의 설립목적은 도성의 병 앓는 백성을 藥餌로써 구하면서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함에 있었다.³⁾

의학사 연구 분야에서 활인서에 대한 선행연구는 김두종과 손홍렬이 대표적이다. 김은 『실록』의 기사와 법전을 중심으로 활인서의 관원규정과 관장 업무 등의 제도를 개괄적으로 소개하였다.⁴⁾ 손의 연구는 김의 연구에 비해 더 상세한 분석을 하고 자신만의 주석을 덧붙였다.⁵⁾ 활인서는

접수 ▶ 2020년 04월 21일 수정 ▶ 2020년 05월 18일 채택 ▶ 2020년 05월 14일
교신저자 ▶ 박훈평, 전남 나주시 동신대길 120-9 대정4관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Tel : 061-330-3525 E-mail : lillipute@dsu.ac.kr

- 1) 『고려사절요 4권』 1049년(문종 1) 6월 기사. “병들었거나 굶주리는 사람을 동서대비원에 모아 구제하였다. 命集疾病, 飢餓者, 於東西大悲院, 救恤.” 『고려사절요』 원문과 번역문은 김종서(1452). “고려사절요”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2020.4.10.)를 활용하였다.
- 2) 『태종실록』 1405년(태종 5) 3월 1일 병신 기사. “禮曹所屬, - 중략 - 東·西大悲院, - 하략 -” 본고에서 『조선왕조실록』의 원문과 번역문은 실록청(1413-1935).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DB (2020.4.10.)를 활용하였다. 『세종실록지리지·경도 한성부』를 보면 동서대비원은 동소문 밖, 서대비원은 서소문 밖에 있었다.
- 3) 『태종실록』 1411년(태종 11) 3월 23일 계미 기사. “司諫院上疏曰: 醫民濟生, 仁政之所先也. 國家置東西大悲院, 凡民之患病者, 咸使就焉, 藥餌以救之, 飲食以養之, 誠爲良法.” 『세종실록지리지·경도 한성부』를 보면 도성 안의 병들고 의지할 곳 없는 이들을 모아놓고 의식주와 약이를 제공하였다. “皆令聚此, 給粥飯湯醬藥餌, 并給衣被薦席, 隨宜調護.”
- 4) 김두종. 『한국의학사』. 서울: 탐구당. 1981:414-415.
- 5) 손홍렬. 『한국중세의 의료제도연구』. 서울: 수서원. 1988:184-189, 264-265, 270.

내의원이나 전의감처럼 순수한 의료관청은 아니며 빈민구제 등의 사회 보장 정책도 함께 시행하였다. 이러한 활인서의 의료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비교적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었다. 최근 조선의 구빈제도는 군주 지배체제를 확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활인서를 의료구호를 시행하는 기관으로 보고 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고찰하였다.⁶⁾ 백도 조선 시대 사회복지 정책에 대하여 지배계층의 사회 안정책으로 해석하면서 활인서를 의료구호 정책 수행 기관의 하나로 보아 간략하게 약술하였다.⁷⁾ 김은 조선 시대의 정책들이 이전 고려 시대와 비교하여 법제가 정비되어 체계화되고 세분화되면서 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시행되었다고 주장하였다.⁸⁾ 이들 연구에서 활인서를 의료구호나 의료시혜의 시행 기관으로서 언급하였으나 그 내용은 간략하였다. 본 연구는 의료기관으로서의 활인서에 대한 기존 연구가 미흡하다는 인식하에 이 부분에 중점을 두었다.

활인서의 성격을 잘 알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근래에 기존의 자료인 『실록』과 법전 이외에도 관련된 다른 문헌들이 발굴 소개되면서 활인서에 관한 더 많은 정보가 알려지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활인서에 대한 문헌들을 재검토하여 선행연구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또한 활인서의 상비처방을 분석하여 당시의 활인서에서 치료해내고자 했던 환자군의 재구성성을 목표하였다.

II. 본론

1. 활인서의 연혁

1) 『경국대전』 이전 시기

동서대비원은 1392년(태조 1) 조선에서 처음으로 관제를 정할 때 설치되었고, 관원으로 副使 1인과 錄事 2인을 두어서⁹⁾ 病人을 맡게 하였다.¹⁰⁾ 1412년(태종 12) 동서대비원의 녹관은 惠民局(혜민서의 전신)과 濟生院의 生徒로 보충하였으니,¹¹⁾ 즉 그 이전 시기에는 녹관에게 의약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았다. 1414년(태종 14) 1월에 관제를 고치면서 대비원부사는 녹사로, 녹사는 副錄事로 낮추었으며,¹²⁾ 같은 해 9월 동서대비원을 東西活人院으로 개칭하였다.¹³⁾ 1416년 동서활인원의 직제에 提學와 別座가 있음이 확인된다.¹⁴⁾¹⁵⁾

1415년 6월에는 각 활인원에 무녀를 소속시켜 병자를 간호시켜 그 성과로 상벌을 주게 하였다.¹⁶⁾ 孫은 무녀를 활인원에 속하게 한 까닭에 대하여 첫째, 무녀가 민간에 거주하면 풍기를 문란하게 한다는 점에서 관청의 통제하에 있을 필요가 있었고, 둘째, 본래 의녀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다 신분이 천민이라 남녀구별이 뚜렷한 당시에 간병인으로서 적합했을 것으로 보았다.¹⁷⁾ 1517년(중종 12) 申用漑의 상소를 보면 동서활인서에서 무녀를 문부에 올려서 그 세를 거두는 것을 혁파하길 청하였다.¹⁸⁾ 즉 활인서에서 무녀를 소속시키는 것은 무녀를 관리하고 세를 걷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다.¹⁹⁾ 활인서가 무녀를 관장하다 보니, 『惠

6) 최창무. 「조선왕조전기의 구빈제도에 대한 연구」. 복지행정논총. 1991;1:138-139.

7) 백철현. 「조선 시대의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지. 1995;4:56-60.

8) 김정화. 「조선 시대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1-33.

9) 『태조실록』 1392년(태조 1) 7월 28일 정미 기사. “東西大悲院, 副使一, 錄事二.” 동대비원과 서대비원에 녹사 각 한 사람으로 吏職이다. 『태종실록』 1411년(태종 11) 12월 15일 신축 기사. “賜議政府典史職, 輪次差下. 政府啓: “府典史五十餘人, 皆無祿俸, 從仕甚苦. 乞依前規, 典獄署丞大悲院副使, 輪次差下.”

10) 『태종실록』 1406년(태종 6) 6월 5일 계해 기사. “東西大悲院掌病人.”

11) 『태종실록』 1412년(태종 12) 12월 4일 을묘 기사. “東西活人院祿官, 不宜以各司吏典充補, 宜以惠民局濟生院生徒補之.”

12) 『태종실록』 1414년(태종 14) 1월 18일 계사 기사. “大悲院副使皆稱錄事, 惠民局, 濟生院, 大悲院錄事皆稱副錄事.”

13) 『태종실록』 1414년(태종 14) 9월 6일 병자 기사. “東西大悲院爲東西活人院.”

14) 이전 시기부터 제거, 별좌는 존재했을 것이나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태종실록』 1416년(태종 16) 12월 2일 기미 기사. “東西活人院, 本有別坐, 今濟生院, 又以祿官, 權知月令差遣, 官號各異, 不爲一體. 願以東西活人院提學, 別坐, 皆兼濟生院提學, 別坐, 使之同心合力, 以盡救療.”

15) 의업출신으로 閑散한 이를 제생원과 혜민국의 별좌라고 일컬어 구전으로 임명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1409년(태종 9) 2월 7일 경진 기사. “乞以所業出身閑散人員等, 於典醫隨品爲權知, 濟生院惠民局稱爲別坐, 口傳施行; 每日仕官習業, 不分尊卑, 病家招請, 卽往救治.” 그런데 1416년 12월 2일 기사를 보면 활인원의 별좌가 제생원의 별좌를 겸하였다. 따라서 당시 활인원의 별좌도 의원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16) 『태종실록』 1415년(태종 15) 6월 25일 병자 기사. “活人院分屬巫覡, 俾令調護病人, 每歲末考其活人多少, 能活十人者, 給賞勸後; 不爲用心者論罪.” 『세종실록지리지·경도 한성부』를 보면 세종대에도 무당이 활인서에 소속되어 있다.

17) 손홍렬. op. cit. p. 189.

18) 『중종실록』 1517년 9월 18일 신묘 기사

19) 한규진은 무격(무당)에게 부과했던 무세가 활인서와 귀후서의 구료경비를 담당했기에, 이러한 비용을 전담시킬 새로운 재원의 확보 없는 정책

局志 式例」의 「供仕」조를 보면 18세기 동서활인서 관원(참봉)은 巫祝官이 되어 임금이 친히 제사를 드리는 때 복숭아나무 가지를 들고 좌우로 열을 서서 대가가 喪次에 이르면 바깥문 안에서 앞서 인도하여 吊所에 이르기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하였다.²⁰⁾ 이러한 역할은 조선 전기부터 활인서가 무녀를 소속시켜 관리한 관청이라는 사실과 결부된다.

1423년(세종 5) 2월, 서활인원은 제조 4원, 제거 2원, 별좌 4원에서 제조 1원, 제거 1원, 별좌 3원을 줄이고, 동활인원은 제거 2원, 별좌 7원에서 제거 1원, 별좌 6원을 줄였다.²¹⁾ 동서활인원의 규모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관원의 수에도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²²⁾ 1419년(세종 1) 동서활인원의 구묘를 맡은 의료관청도 동활인원은 제생원이 서활인원은 혜민국이 맡았다.²³⁾ 1460년(세조 6) 5월 동서활인원의 부녹사 1인이 혁파되었다.²⁴⁾ 1466년 1월 동서활인원은 동서활인서로 바뀌면서 參奉(종9품)을 처음으로 두었다.²⁵⁾

표 1. 『경국대전』 이전의 활인서 관제 변천

연도	관직	관서명
1392.7.28. 『태조실록』	副使 각 1인, 綠事 각 2인 처음 설치	東西 大悲院
1414.1.18. 『태종실록』	副使를 綠事로 綠事를 副錄事로 낮춤	
1416.12.2. 『태종실록』	提擧, 別坐 있음 (개설 시기 미상)	東西 活人院
1423.2.9. 『세종실록』	西 : 提調 4→3, 提擧 2→1, 別坐 4→1 東 : 提擧 2→1, 別坐 7→6	
1460.5.22. 『세종실록』	副錄事 각 1인 혁파	
1466.1.15. 『세조실록』	參奉 처음 설치	活人署

은 성공할 수 없다고 보았다. 즉 무세를 혁파 정지시키려는 일련의 조치들이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한규진. 「무격의 역할과 통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2019;79:283-313. 그런데 무세는 단순히 활인서의 구묘경비 뿐 아니라 소속 원역에게 지급되는 요포의 원천이기도 하였다. 서울 무녀에게서 거둔 身布의 일부로 원역의 요포를 지급하였다. 정조 때 서울 무녀들을 지방으로 축출한 시기가 있었는데 활인서 원역 요포 재원이 문제가 되자, 축출되어 거주하는 지방에서 신포를 거두어 지급하게 하였다. 『정조실록』 1780년(정조 4) 9월 24일 기해 기사.

- 20) 『惠局志 式例』 「供仕」 巫祝官. 【大駕親臨吊祭時, 兩醫司官員各一員, 以淺淡服, 奉筵, 兩活人署官員各一員, 奉桃枝, 分列左右. 大駕至喪次, 自外門內前導至吊所. 吊罷後, 大駕乘輦, 則止本署. 以入直員差送】 강위병 저. 박훈평 역주. 『역주 혜국지』. 서울: 퍼플. 2015:76. 여기서 관원이란 『惠局志 式例』 「入直」조를 보면 임직하는 관원은 동서활인서참봉 뿐이다.
- 21) 『세종실록』 1423년(세종 5) 2월 9일 경신 기사. “西活人院提調四, 今革一; 提擧二, 今革一; 別坐四, 今革三. -중략- 東活人院提擧二, 今革一; 別坐七, 今革六; 內侍四, 今革.” 손은 제거와 제조가 구분되는 시기임에도 제조와 제거를 동일하게 보았다. 손홍렬. op. cit. p. 264-265.
- 22) 손홍렬. op. cit. p. 187.
- 23) 『세종실록』 1419년(세종 1) 2월 14일 기축 기사. “東活人院則濟生院, 西活人院則惠民局, 分掌救療.”
- 24) 『세조실록』 1460년(세조 6) 5월 22일 정유 기사.
- 25) 『세조실록』 1466년(세조 12) 1월 15일 무오 기사. “東, 西活人院改稱活人署, 置參奉一.” 김은 세조 때의 참봉에 대하여 1원을 두었다고 하였으나, 이는 확실하지 않다. 오히려 동과 서활인서이므로 2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김두중. op. cit. p. 415. 손은 활인서의 녹관과 의원을 별개로 보았다. 그러나 녹관의 하나인 참봉은 의원이 확실하므로 이는 오류이다. 초기 녹관직인 별좌도 일부 시기에는 의원이 임명된 것으로 보인다. 손홍렬. op. cit. p. 184-189.
- 26) 『태조실록』 1392년(태조 1) 7월 28일 정미 기사.
- 27) 『세종실록』 1419년(세종 1) 2월 14일 기축 기사.
- 28) 『태조실록』 1397년(태조 6) 8월 23일 임인 기사. “置濟生院, 令各道每歲輸納鄉藥材, 如惠民局例.”
- 29) 『태종실록』 11405년(태종 5) 12월 2일 갑자 기사. “鰥寡孤獨, 篤疾廢疾, 失業之民, 豈無凍餒, 以非命而亡者歟? 予甚閔焉. 令漢城府及留後司, 五部, 無遺通曉, 聚而養之.”
- 30) 『세종실록』 1419년(세종 1) 2월 14일 기축 기사.
- 31) 『태종실록』 1412년(태종 12) 12월 4일 을묘, 1418년(태종 18) 6월 21일 경자 기사.

이 시기 대비원과 서민의 구묘라는 업무 영역이 겹치는 관청으로 惠民局과 濟生院이 있었다. 혜민국은 동서대비원과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의료관청으로²⁶⁾ 서민 질병 치료가 주목적이며, 세종 때에는 서활인원의 구묘 일을 맡아보기도 하였다.²⁷⁾ 제생원은 동서대비원이나 혜민국보다 늦은 태조 6년에 개설된 관청으로²⁸⁾ 의지할 곳 없는 백성들을 거두어 돌보고 치료하는 역할을 하였다.²⁹⁾ 세종 때의 제생원은 동활인원의 구묘를 담당하였다.³⁰⁾

대비원과 이들 관청의 차이는 무엇보다 혜민국과 제생원 둘 다 대비원과 다르게 의료 관청에 속하였다는 점이다. 대비원 시기 의약 관련 업무는 제생원 등의 도움을 받았다. 둘째 대비원은 교육 기능이 없었다. 혜민국은 의생, 제생원은 의생과 의녀를 교육하는 기관이었다.³¹⁾ 셋째 혜민국과 제생원은 약재를 관리하였다. 혜민국과 제생원은 공납하는 鄉藥을 관리하였다.³²⁾

혜민국과 제생원의 차이는 첫째 혜민국은 제생원과 달리 의학 관련된 업무만 담당할 뿐 의식주 관련한 돌봄을 제공하지 않았다. 둘째 약재 관리에 있어서도 혜민국은 약재구입을 담당했고, 제생원은 朝官에게 약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³³⁾ 제생원은 동서대비원과 서민의 돌봄이라는 역할이 비슷하나, 교육과 향약 관리라는 차이 외에도 환자가 아닌 棄兒 등에도 돌봄을³⁴⁾ 제공하여 구분이 된다.

이들 기관의 역할 증척은 조선의 제도가 정립됨에 따라 1460년(세조 6) 5월 제생원이 혜민국으로 合屬되면서 정리되었다.³⁵⁾ 제생원의 역할은 혜민국으로 이속되었고,³⁶⁾

1478년(성종 9) 조관에게 약을 제공하는 역할만 따로 해민서³⁷⁾에서 전의감으로 이속되었다.³⁸⁾ 또한 제생원과 해민국에서 파견되던 의학 관직은 1466년 1월 활인원이 활인서로 바뀔 때 참봉을 두어 상설화되었다.³⁹⁾

2) 『경국대전』 이후

성종 조 『경국대전』에서 활인서는 종6품아문으로 소속 관원은 제조 1원, 別提(종6품) 4원, 참봉 2원으로 규정되고 “참봉은 의원이면서 체아직으로 兩都目⁴⁰⁾을 통해 임명한다.”하였다(그림 1).⁴¹⁾ 1746(영조 22)의 법전인 『속대전』에서는 별제 2원을 줄였다. 실제 별제직의 감원은 1612년(광해 4) 선조 때 혁파된 활인서가 복설된 시기부터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1778년(정조 2)에 완성된 해민서 관청지인 『惠局志 沿革』의 「官制」조를 보면 “활인서참봉은 2원이다. 종9품관이며 동활인서와 서활인서에 나누어 차임하여 도성의 환자를 치료하고 살리는 일을 관장한다. 양도목에서 취재 점수를 가지고 차례대로 녹봉이 있는 관직에 붙이는데 모두 체아직이다.”라 하였다.⁴²⁾ 1784년(정조 8)의 법전인 『대전통편』과 1865년(고종 2)의 『대전회통』, 1867년의 『육전조례』의 활인서 관원 규정은 『속대전』과 동일하다(표 2). 다만 1795년(정조 19)의 『실록』 기사를 보면 활인서 별제를 각각 한 자리씩 증설하는 내용이 있는데,⁴³⁾ 이는 2원에서 『경국대전』 당시의 4원으로 환원시킨 것으로 이러한 복구가 어느 시기까지 유지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고종 때의 법전에는 2원이 유지되고 있어 그 이전 시기에 다시 감원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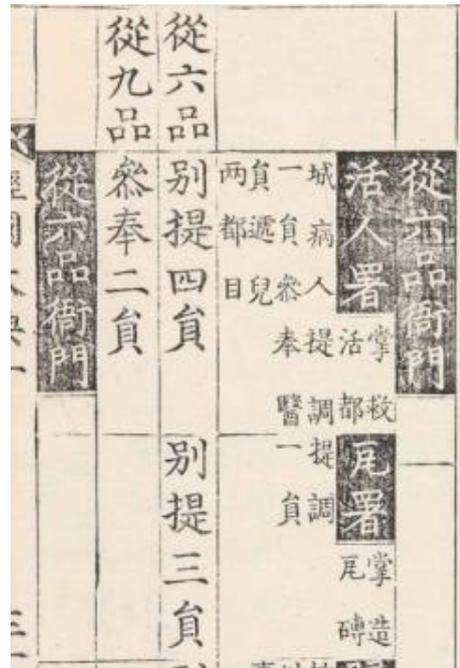


그림 1. 『경국대전 권1』 활인서 관원규정

표 2. 『경국대전』 이후의 활인서 관제 변천

법전	관직
『경국대전』	提調 1, 別提 4, 參奉(醫官) 2
『속대전』 1746(영조 22)	別提 減 2
『대전통편』 1784(정조 8)	提調 1, 別提 2, 參奉 2
『대전회통』 1865(고종 2)	提調 1, 別提 2, 參奉 2
『육전조례』 ⁴⁴⁾ 1867(고종 4)	提調 1, 別提 2, 參奉 2

활인서는 연산군이 설치한 사람의 왕래를 금지한 禁標 내에 위치한 관계로 동서활인서가 모두 혁파되기도 하였다. 반정 이후 1512년(중종 7) 이후에 다시 설치되었다.⁴⁵⁾ 혁파 시기는 1505년(연산 11) 11월 이후로 추정되나 정확하

32) 『태조실록』 1397년(태조 6) 8월 23일 임인 기사.

33) 『성종실록』 1478년(성종 9) 11월 25일 임오 기사.

34) 『세종실록』 1435년(세종 17) 6월 22일 임술 기사. “京中五部遺失孩兒, 皆送本院護養, 但因本院無房屋, 不能聚會養育, 分付婢子以養而檢察之, 其婢子等, 率皆無恒心.”

35) 『세조실록』 1460년(세조 6) 5월 22일 정유 기사.

36) 기아를 기르는 일도 해민서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세조실록』 1466년(세조 12) 4월 12일 임자 기사.

37) 세조 12년 해민국은 해민서로 개칭되었다. 『세조실록』 1466년(세조 12) 1월 15일 무오 기사.

38) 『성종실록』 1478년(성종 9) 11월 25일 임오 기사.

39) 『세조실록』 1466년(세조 12) 1월 15일 무오 기사. “東, 西活人院改稱活人署, 置參奉一.”

40) 6월 말과 12월 말에 두 번 시행되는 정기 인사.

41) 『경국대전 권1 이진』 「京官職」. 본고에서 『경국대전』을 비롯한 각 법전의 원문과 이미지는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규장각한국학연구원, e-규장각자료총서 (2020.4.10.)를 활용하였다.

42) 『惠局志 沿革』 「官制」 “活人署參奉 二員. 【以上並從九品. ○ 分差東西署, 掌救活都城病人. ○ 直長以下八員, 以兩都目取材分數等次, 付祿並遞兒職.】” 강위병. op. cit. p. 20.

43) 『정조실록』 1795년(정조 19) 12월 28일 을사 기사.

44) 『육전조례』를 제외한 다른 법전들은 『권1 이진』 「京官職」에 관련 내용이 있으나 『육전조례』는 『권6 예전』 「活人署」에 관련 내용이 있다.

45) 『연산군일기』 1504년(연산 10) 7월 18일 병오 기사. “於沙乙河里洞口作警守鋪, 禁人往來, 其居人出居標外, 使竝分守, 活人署即撤去” 『중종실록』 1512년(중종 7) 2월 21일 기사. “東西活人署, 專爲病人而設, 禁標時, 東西活人署盡撤去, 迨不復立. 臣請依前復立.”

지는 않다.⁴⁶⁾ 임진왜란기인 1595년(선조 28) 4월에도 관원 감원정책에 따라 활인서를 혁파하여 예조에 합병시키기도 하였다.⁴⁷⁾ 1612년(광해 4) 12월 전염병이 퍼지자 대간이 아뢰어 활인서가 다시 복설되었다.⁴⁸⁾ 이러한 일시적인 혁파시기를 제외하면 대개의 시기 『경국대전』 이후 법전에 규정된 직제를 유지하다가(별제는 제외) 1882년(고종 19) 12월 관제 개혁 때 혜민서와 함께 혁파되어 전의감으로 합병되었다.⁴⁹⁾ 그러나 구휼하는 일의 중요성 때문에 1885년(고종 22) 2월 廣惠院이 설치되어 구휼 역할을 관장하게 하였다.⁵⁰⁾ 광혜원은 같은 해 3월에 濟衆院으로 개칭되었다.⁵¹⁾

2. 활인서의 상비처방

1) 연구방법

활인서의 상비처방은 『해국지』를 통해 확인된다. 『해국지·支供』의 「進排」조를 보면 “동서활인서의 경우, 해마다 大柴胡湯 각 10첩, 二聖救苦丸 각 2첩, 陳艾 6編을 혜민서에서 진배하고, 淸心元, 蘇合元 각 10알, 平胃散, 升麻葛根湯, 九味羌活湯 각 10첩을 전의감에서 진배한다.”⁵²⁾하였다.

뜸 재료인 묵은 쑥 외에 『해국지』에서 거론된 활인서의 처방은 모두 7종이다. 본고에서는 이들 처방을 활인서의 상비처방으로 보고 처방들의 주치와 출전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들 처방이 수록된 조선 전기와 후기 구급방서와 전염병 전문서에서의 인용 내용 변화도 비교하면서 살펴보았다. 조사 문헌은 관찬 간행 문헌으로 한정하였다. 사찬 문헌의 내용은 단방약 위주인데다, 위정자의 관심만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활인서 상비 처방은 관청의 대응 과정에서 만들어졌으므로, 관찬 의서가 사찬 의서에 비해 활인서 상비방의 역사적 맥락이 더욱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문헌의 시간적인 발간 순서대로 내용을 분석하면서, 관련 내

용이 없는 문헌 예를 들어 『분문은역이해방』(1542년) 등은 제외하였다.

2) 15세기 후반-16세기 전반

성종에서 중종의 치세에 이르는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전반 시기는 『의방유취』 완성 이후 당시대 의학지식을 집적시키려는 이전 시기의 작업은 일단락되었고 분과의학의 발달이 두드러진 시기였다. 이 시기 구급방서와 두창 치료 전문의서의 발간도 관의 주도로 수차례 이루어졌다.

『구급간이방언해』는 내의원제조 尹壕, 서하군 任元濬 등이 성종의 명으로 1489년(성종 20)에 편찬한 구급방서이다.⁵³⁾ 이 책에 수록된 활인서 상비 처방은 표 3과 같다. 『구급간이방언해』는 복합 약재의 처방보다는 단방이나 민간방 위주로 구성되었는데, 수록된 3처방은 모두 송대 의서인 『화제국방』이 출전이다. 『화제국방』은 陳師文 등이 1107-1110년에 황제의 명으로 저술한 방서로서, 조선에서는 1430년(세종 12) 의학 취재과목의 하나로 처음 정해졌고, 1442년(세종 24) 이전에 조선에서 간행되기도 하였다. 성종조 『경국대전』에서 의과 과목으로 정례화 되어 널리 사용되다가, 영조조 『속대전』에서는 시험 과목에서 빠졌다.⁵⁴⁾

표 3. 『구급간이방언해』 수록 내용⁵⁵⁾

수록 권	내용	처방
권1	中風 “宜服和劑方牛黃淸心元-하략-”	우황청심원
	中氣 “宜服和劑方麝香蘇合元-하략-”	소합원
	傷寒時疫 “宜服和劑方-중략-大柴胡湯, 蔘蘇飲”	대시호탕
권2	心腹痛 “宜服和劑方-중략-蘇合香圓, 九痛圓”	소합향원
	鼻衄 “宜服和劑方-중략-蘇合香圓冷水嚙下”	소합향원

46) 『연산군일기』 1505년(연산 11) 11월 16일 정유 기사. 내관 김숙호를 서활인서에 定役시키는 내용이므로 당시까지도 활인서가 존속했다.

47) 『선조실록』 1595년(선조 28) 4월 22일 갑자 기사.

48) 『광해군일기』 1612년(광해 4) 12월 16일 을사 기사.

49) 『고종실록』 1882년(고종 19) 12월 29일 신사 기사.

50) 『고종실록』 1885년(고종 22) 2월 29일 기해 기사.

51) 『고종실록』 1885년(고종 22) 3월 12일 신해 기사.

52) 『해국지·支供』 「進排」 “東西活人署。【每年, 大柴胡湯各十貼, 二聖救苦丸, 各二劑, 陳艾, 各六編, 本署進排. 淸心元, 蘇合元, 各十九, 平胃散, 升麻葛根湯, 九味羌活湯, 各十貼, 醫監進排.】” 강위방. op. cit. p. 110.

53) 김신근. 『한의약서고』. 서울:서울대학교출판부. 1987:123.

54) 박훈평. 「조선 시대 의학교과서 연구」. 한국 의사학회지. 2016;29(2):4, 8, 11.

55) 윤호, 임원준, 허중, 박안성, 권건 외 3인 편. 김동소 역주. 『역주 구급간이방언해 권1』. 서울: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7:41, 85, 142. 윤호, 임원준, 허중, 박안성, 권건 외 3인 편. 남성우 역주. 『역주 구급간이방언해 권2』. 서울: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8:74, 239.

『구급이해방』은 연산군의 명으로 내의원도제조 尹弼商, 제조 洪貴達, 부제조 鄭眉壽 등이 1498년(연산 4) 편찬하여 1499년에 간행한 구급방서이다.⁵⁶⁾ 이 책에서 소합원은 10개, 청심원은 4개, 대시호당은 1개⁵⁷⁾, 평위산은 2개의 병증의 병증에서 치료처방으로 언급된다(표 4). 중복된 2조문을 제외하고 『구급이해방』의 전체 76병증 중에 활인서 상비 처방은 15병증에 해당한다. 특히 소합원은 다양한 병증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표 4. 『구급이해방』의 수록 내용⁵⁸⁾

소합원 수록 조문		
순서	병증조문	내용
1	中風	治中風痰盛, 每服四丸, 薑汁磨化, 灌服, 溫酒亦得, 老少可服一丸.
5	中暑	治中暑不省人事(이후 복용법 기록)
14	血病	治吐血衄血, 白茅花湯化下
15	諸氣	治氣中牙關緊急(이후 복용법 기록)
17	心痛	治卒心痛(이후 복용법 기록)
24	眩暈	治怔忡頭暈, 服法見上中風
26	咳逆	治咳逆(이후 복용법 기록)
41	中惡	治卒中惡忤症, 服法見上中風
51	打撲傷損	治從高墮下昏, 迷不省, 服法見上諸氣
75	小兒啼	客忤, 中惡, 夜啼, 疳痛, 服法見上中風
청심원 수록 조문		
순서	병증조문	내용
1	中風	治中風不語, 恍惚煩鬱, 每一丸, □化不食後.
24	眩暈	治諸風眩冒, 服法見上中風
40	癲癩	治常發狂癲, 服法見上中風
74	小兒驚癇	治小兒驚癇(이후 복용법 기록)
평위산 수록 조문		
순서	병증조문	내용
21	脾胃	治脾胃不和, 心腹脹滿, 消化宿食(이후 복용법 기록)
31	浮腫	治浮腫, 不振飲食(이후 복용법 기록)

『간이벽은방』은 1524년(중종 19)에 왕명으로 부호군 金順夢, 예빈시주부 劉永貞 등이 편찬한 벽은 전문의서이다.⁵⁹⁾ 소합원(소합향원)과 승마갈근탕이 수록되었다.

표 5. 『간이벽은방』의 수록 내용⁶⁰⁾

처방 이름	내용
소합향원	治鬼氣, 時氣, 鬼魅, 每服四丸, 溫水調服, 溫酒亦可(이후 복용법 기록)
승마갈근탕	治傷寒, 時疫, 頭痛 增壯寒熱熱, 及治寒暄不時人多疾疫(이후 처방구성과 복용법 기록)

3) 17세기 초

17세기 초 허준은 이전 의학 지식을 재정리하는 작업을 하였다. 『동의보감』 외에 활인서 상비방이 수록된 허준의 저작으로는 『診解痘瘡集要』, 『診解救急方』, 『新纂辟瘟方』, 『辟疫神方』, 『診解臘症治方』이 있다.

『언해두창집요』는 1601년(선조 34)에 왕명으로 편찬한 두창(천연두) 전문의서이다.⁶¹⁾ 이 책에서 승마갈근탕은 3회, 청심원은 1회 기술되었다(표 6). 승마갈근탕은 조선 전기부터 표증치료에 다양하게 활용해왔으며 전염병 관련해서 조선에서도 이른 시기부터 사용된 처방이었다.⁶²⁾ 양예수의 『의림촬요 권1·상한문 부록』에는 “傷寒時疫과 寒熱鼻乾을 치료한다.”라 하였다. 허준의 『언해두창집요』와 박진희의 『두창경험방』를 거치면서 조선 후기 천연두와 홍역 치료의 기본처방으로 자리 잡는다.

표 6. 『언해두창집요』 수록 내용⁶³⁾

조문	내용	처방
發熱三日	朱彥修曰: 發熱似傷寒, 疑以未明, 且與升麻葛根湯, -중략- 解表. (이후 처방구성 기록)	승마갈근탕
腰腹痛	澹療方曰: 痘疹, 必先腹痛, 蓋痘子, 先自腸胃中出, 然後發於外, 宜升麻葛根湯	승마갈근탕
痲疹	(醫學入門) 又曰: 痲疹, 以升麻葛根湯爲主	승마갈근탕
黑陷	治黑陷, 煩燥, 狂妄(이후 복용법 기록)	청심원

56) 김신근. op. cit. p. 115.

57) 「傷寒」 “治傷寒發熱, 十餘日, 大便秘, 譫語.” 윤필상, 홍귀달, 정미수, 김홍수 편, 전종욱 역주. 『국역 구급이해방』. 서울: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3:24.

58) 윤필상, 홍귀달, 정미수, 김홍수 편. op. cit. p. 19, 27, 40-42, 45, 50, 54, 57, 65, 79, 80, 94, 124, 126. 표에서 ‘순서’는 『구급이해방』의 조문 수록 순서이다. 표 내용 중 ‘□’는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이다.

59) 김신근. op. cit. p. 135.

60) 김문용 역주. 『역주 신선태을자금단 간이벽은방 벽은신방』. 서울: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9:93, 103.

61) 김신근. op. cit. p. 161.

62) 1419년(세종 1) 各道에 역질이 돌자 세종이 내려 보낸 약의 하나였다. 『세종실록』 1419년(세종 1) 5월 1일 을사 기사. “今聞, 各道疾疫盛行. 教諭守令, 不盡力救療, 致令天扎. 予甚憫焉. 其賜香蘇散, 十神湯, 升麻葛根湯, 小柴胡湯等藥于諸道監司, 依方救療.”

63) 허준 저. 안상우, 권오민, 박상영, 이정화 역. 『의성허준저작집 5』.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14:291, 350, 405.

『언해구급방』은 1607년(선조 40)에 왕명으로 편찬한 구급방서이다.⁶⁴⁾ 이 책에서 소합원은 6개, 청심원은 2개, 이성구고환은 1개의 병증에 사용된다(표 7). 소합원과 청심원은 조선 전기 구급방의 전통을 이어받은 처방이다. 그런데 大頭瘟이란 새로운 유행병과 이성구고환이란 새로운 처방이 기록되었다.⁶⁵⁾ 양예수가 공신, 공정현의 『古今醫監』을 인용하여 『의림촬요 권2·온역문』에서 “상한, 온역, 대두운의 인후가 붓는 증상을 치료한다.”고 소개한 바 있다.⁶⁶⁾ 이성구고환은 공씨의 創方으로 이 처방이 조선의 문헌에 등장한 것은 『의림촬요』가 처음이다.

표 7. 『언해구급방』 수록 내용⁶⁷⁾

처방 이름	내용
소합원	中風 : 口開, - 중략 - 或龍腦蘇合元三丸, 灌口中 氣厥 : 氣厥多生於驕貴之人, - 중략 - 急用蘇合元三丸, 薑湯調灌, 卽醒. 尸厥 : 尸厥之病, 身脈皆動, - 중략 - 急用蘇合元三丸 卒死 : 卒然暴死, 心頭溫者, 可活, 急取蘇合元三丸 中惡 : 中惡, 一名客忤. - 중략 - 調蘇合元三元, 灌下 心痛 : 心胸卒大痛, 蘇合元三丸, 薑湯或酒服.
청심원	中風 : 口開, 取竹瀝三合, 薑汁一合, 調清心元一丸 痰厥 : 暴患痰厥, - 중략 - 又清心元一丸, 調竹瀝, 薑汁灌下.
이성구고환	大頭瘟 : 治方 大黃酒蒸四兩, 皂角二兩, 爲末 (이하 복용법 기술)

허준 저작으로 추정되는 『언해납약증치방』은 간기가 없어 간행연대를 알 수 없는데, 내의원에서 다음 해에 사용할 각종 상비약인 납약의 효능, 금기 등을 적은 책이다.⁶⁸⁾ 이 책에는 소합원이 2회, 청심원이 1회 인용되었다(표 8). 조선 후기에도 청심원과 소합원은 臘藥으로 만들어 보관하다가 위급 시에 사용하는 환약으로 조선에서 활용되었다.⁶⁹⁾

이러한 정례는 조선 전기부터 이어져 온 구급방의 전통이다.

표 8. 『언해납약증치방』 수록 내용⁷⁰⁾

처방 이름	내용
우황청심원	治中風不語, 恍惚煩鬱, 痰熱, 傷寒發熱, 心氣不足, 神志不定, 一切發熱等症. ○ 又治卒中風, 不省人事, 痰涎壅塞, 精神昏憤, 言語蹇澁, 口眼喎斜, 手足不收, 每取一丸, 溫水化下(이하 복용시 금기 음식 기술).
소합원	○ 治傳尸鬼氣, 卒心腹痛, 癩亂, 時氣, 癩瘡, 暴痢赤白, 月閉, 痲癩, 小兒吐乳, 大人狐狸等疾, 大能順氣化痰. ○ 又治一切氣痰及中風上氣, 氣逆, 氣鬱, 氣痛 (이하 복용법 기술).

『신찬벽온방』은 1613년(광해 5)에 왕명을 받아 辟溫의 예방과 치료법을 쓴 저술이며, 『벽역신방』은 같은 해 왕명으로 唐毒疫(성홍열)의 치료법을 쓴 저술이다.⁷¹⁾ 『신찬벽온방』에는 대시호탕, 구미강활탕, 이성구고환이 『벽역신방』에는 구미강활탕, 대시호탕이 수록되었다. 구미강활탕은 양예수의 『의림촬요 권1·상한문』에는 感冒頭疼, 發熱, 惡寒, 無汗을 치료하는 처방으로 나온다. 조선에서 구미강활탕을 단순한 감모 처방만이 아닌 전염병 초기 치료 처방으로 활용한 이는 허준이 처음이다. 또한 대시호탕은 소합원이나 청심원의 사례처럼 조선 전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었다.

표 9. 『신찬벽온방』 수록 내용⁷²⁾

항목명	내용	처방
癩疫治法	夏發溫疫 夏發燥疫	대시호탕
溫疫表症宜汗	溫疫初感 一二日間	구미강활탕
溫疫裏證宜下	癩病六七日 目赤舌黑 發狂譫妄 大渴	대시호탕
大頭瘟	大頭瘟	이성구고환

64) 김신근. op. cit. p. 166.

65) 술에 쪼인 大黃 4냥과 皂角子 2냥으로 된 처방인데 원문에는 처방 이름이 나오지 않고 처방 내용만 기록되었다. 허준. op. cit. p. 120.

66) 『의림촬요』 원문과 번역문은 양예수(1635). “의림촬요” 한국고전종합 DB(2020.4.10.)를 활용하였다.

67) 허준. op. cit. p. 6, 13, 14, 16, 18, 20, 31, 120.

68) 김신근. op. cit. p. 338.

69) 『내의원식례·연례제조』 내의원에서는 臘日(동지로부터 3일째 되는 未日)에 우황청심원, 소아청심원, 용뇌소합원, 사향소합원을 납약으로 제조하였다. 내의원 편, 박훈평 역주. 『내의원식례』, 서울:퍼플, 2015:41. 1849년경에 저술된 『東國歲時記』에서 납약 중에 清心元, 蘇合元, 安心元 3종이 가장 요긴하다고 하였다. 이 중 清心元은 답답한 것을 풀어주고, 소합원은 滯를 푸는데 좋다고 하였다. 홍석모 저. 장유승 역해. 『동국세시기』, 파주:아카넷, 2016:227.

70) 허준 저. 안상우, 권오민, 박상영, 이정화 역. 『의성허준저작집 6』,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14:225, 227.

71) 김신근. op. cit. p. 306, 311.

72) 허준. op. cit. p. 17, 19, 21, 27, 38, 42.

표 10. 『벽역신방』 수록 내용⁷³⁾

항목명	내용	처방
毒疫治法	前三日, 宜汗之	구미강활탕
毒疫治法	後三日, 宜下之	대시호탕
藥方	流行性瘟疫 熱疾流行	구미강활탕

4) 17세기 중반 - 18세기

1650년(효종 1) 5월 활인서에서 전염병 치료에 이성구고환이 효과를 본 사례가 나온다.⁷⁴⁾ 이성구고환을 年老氣弱한 사람은 쓸 수 없고, 건장한 이에게만 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건장할 경우에 쓰면 당시 50-60%의 치료율을 기록했다.⁷⁵⁾ 당시의 임상 사례는 효종 사후에 효종의 『실록』 행장에 나올 만큼 당시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⁷⁶⁾ 이성구고환이 활인서의 상비약으로 정례화된 것은 1650년에 있었던 전염병 치료 경험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활인서의 다른 상비방도 이성구고환처럼 크게 성공했던 임상경험에 의해 정례화된 것이 아닐까 추정되나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⁷⁷⁾

『辟瘟新方』은 1653년(효종 4)에 安景昌 등이 왕명을 받아 편찬한 온역 전문의서이다.⁷⁸⁾ 『벽온신방』에는 승마갈근탕, 대시호탕, 소합원이 수록되었다. 승마갈근탕 내용은 『간이벽온방』을 요약하였다.

표 11. 『벽온신방』 수록 내용⁷⁹⁾

처방 이름	내용
승마갈근탕	治傷寒, 時疫, 頭痛 增壯寒熱 (이하 처방구성과 복용법 기록)
대시호탕	治內實大便難, 身熱惡寒 (이하 처방구성 기록)
소합원	瘟疫辟法 蘇合元每取九丸, 浸一瓶酒中, 時時飲之, 最辟鬼疫之氣

73) 허준. op. cit. p. 78, 82, 84.

74) 『승정원일기』 1650년(효종 1) 5월 16일 무진 기사. “自惠民署, 連續劑送二聖救苦丸, 大柴胡湯, 正氣散等藥, 而大概, 前後病人, 以二聖救苦丸, 得效而復蘇者頗多云.” 1650년 7월 6일 정사 기사. “以二聖救苦丸·柴芩湯·大小柴胡湯, 各樣方藥, 盡心治療, 而二聖救苦丸, 最有其效, 兩署所報, 皆如此矣.” 본고에서 『승정원일기』는 승정원(1623-1894), “승정원일기”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DB(2020.4.10.)를 활용하였다.

75) 『승정원일기』 1650년 6월 23일 을사 기사. “兩署官員, 更爲招致, 以此下教, 一一詳問, 則以爲二聖救苦丸, 自惠民廳, 今方連續劑送, 年老氣弱者, 則不爲用之, 成壯之人, 則用藥見效者, 十居五六.”

76) 『효종실록』 효종대왕 행장. “백성들의 굶주림과 전염병을 구휼할 적에는 타는 불을 끄는 것같이 하였다. - 중략 - 경인년(1650)에 閭巷에 전염병이 크게 치성하자 동서의 활인서에 엄히 계칙하여 마음을 다하여 치료하게 하였으며, 관에서 미곡을 지급하여 먹이는 한편 醫司로 하여금 이성구고환을 많이 제조하여 요절하는 것을 구제하게 하였다.”

77) 『동국세시기』를 보면 전통적으로 滯症에 써오던 남약인 蘇合元이 정조가 1790년에 만든 濟衆丹, 廣濟丸에 비해 효과가 떨어진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임상 경험을 통해 기존의 상비약이 대체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홍석모. op. cit. p. 228.

78) 김신근. op. cit. p. 327.

79) 김문웅. op. cit. p. 144, 156, 174.

80) 『승정원일기』 1714년 4월 22일 기사. “黃一夏, 以禮曹言啓曰, 因傳教濟州藥物優數下送事, 知委於當該醫司, 則以荊防敗毒散·升麻葛根湯·九味羌活湯·既濟解毒湯各一百貼, 二聖求苦丸四劑生材進排, 故別定湖南界首官主人, 朝已發送於本道監營, 而又爲行關所經各邑, 使之次次替員, 急速傳送矣, 敢啓. 傳曰, 知道.” 1714년 8월 18일 정해 기사. “因傳教, 濟州藥物, 更加下送事, 知委於當該醫司, 則以荊防敗毒散·升麻葛根湯·九味羌活湯·既濟解毒湯, 各一百貼, 二聖救苦丸四劑, 生材進排, 故別定界首官主人, 今日發送於本道監營, 而又爲行關所經各邑, 使之次次替員, 急速傳送矣.”

1714년(숙종 40)에 제주목에서 괴질이 유행하여 정부에서 보내는 처방에도 이성구고환, 승마갈근탕, 구미강활탕이 포함되어있다.⁸⁰⁾ 그런데 상비처방 중 전염병 치료에 쓰이는 4종의 처방의 출전을 보면 모두 16세기 명대 의학의 성과이다. 이성구고환처럼 명대 의가의 창방이거나 대시호탕처럼 명대 의가들에 의해 재차 인용된 처방들이다.

5) 小考

이상 상비처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상비처방의 구성에 있어 허준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 승마갈근탕은 『언해두장집요』의 주요 처방이며, 이성구고환, 대시호탕, 구미강활탕은 『신찬벽온방』 등의 저술에 근거를 두었다. 소합원과 청심원은 『언해구급방』과 『언해납약중처방』에 인용되었던 처방이다. 다만 평위산은 『동의보감』 외의 허준 저술에 나오지 않는다.

둘째, 열성유행병은 당시의 응급의료적인 면에 있어 사회적인 주요 문제였다. 당시 조선의 빈민들이 약을 복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응급질환들을 이들 처방 7종으로 재구성해 볼 수 있다(표 12). 물론 이 질환들은 기회비용과 발생 빈도의 측면에서 정부 기관의 선택과 집중을 거친 질환들이다.

표 12. 활인서 상비처방의 주치

처방 이름	전염병	내과
대시호탕	○	×
이성구고환	○	×
청심원	△	○
소합원	△	○
평위산	×	○
승마갈근탕	○	×
구미강활탕	○	×

상비약 7종 중에 전염병 처방이 4종이나 되므로, 열성유행병은 당시의 응급 의료 면에 있어 가장 최우선의 주요 문제라 하겠다. 청심원과 소합원도 전염병 관련되어 사용될 수 있는 처방이므로 열성전염병 치료처방이 상비방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다른 3종 처방의 주치는 氣逆, 痰熱, 脾胃不和로서 이들 질환도 당시 주요한 응급 질환에 들어갔을 것이다. 상비약 7종 중에 조선전기부터 응급질환에 폭넓게 사용되어온 소합원과 청심원을 제외하면 다른 처방들은 조선 전기에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였다.⁸¹⁾ 이를 17세기 소빙하기의 도래에 따른 환경과 연관된 전염병 유행의 결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이전 시기에도 다양한 역병이 창궐했음은 사료를 통해 확인된다. 특히 溫疫은 태조 이후로 유행 기사가 보이며, 1524-1527년(중종 19-22), 1546-1549년(명종 1-4), 1577년(선조 10)에 전국적으로 대유행하였고, 惡病은 1437년(세종 19)에 황해도에서 발생하여 문종 재위기간에도 재유행하였다.⁸²⁾ 그런데 조선 전기의 구급방서, 예를 들어 성종조 『구급간이방언해』에서 열성전염병으로 부를만한 상병은 傷寒時疫 밖에 없는데 처방들은 인삼, 패독산, 불환금정기산, 소시호탕, 대시호탕, 삼소음, 오적산, 향소산, 금불초산, 패독산, 오령산에 불과하며 단방이나 민간요법 중심으로 활용한다.⁸³⁾ 1542년(중종 37) 왕명을 받아 김안국, 박세거, 홍침 등에 의해 편찬된 온역전문서인 『본문온역이해방』을 보면 복방으로 이루어진 치료 처방은 없고 단방이나 주술적인 예방법들을 수록하고 있다.⁸⁴⁾ 이 시기의 다른 구급방서도 이러한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아니한다.

셋째, 조선 후기에 열성유행병 치료에 있어서 이전 시대에 비하여 더욱 정교해진 치료 처방을 갖추게 되었다. 전염병 치료술의 발전과 약재의 원활한 공급이 이와 연관된다.

16세기 많은 전염병 관련 의서가 간행된 사실은 이 시기에 전염병이 조선에 창궐했다는 증거이다. 이들 의서의 내용이 의사보다는 일반 백성에게 주안점을 둔 사실은 선행 연구의 지적처럼 당시 국가재정의 한계, 의료인력과 약재 공급 문제도 관련이 있다.⁸⁵⁾ 그러나 조선 후기 열성전염병 위주로 이루어진 상비방의 변화는 전염병에 대응하면서 정교해진 의학 이론에 따라 일정 부분 이성구고환처럼 팔목 할만한 치료 성과를 낸 결과임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는

명대 의학의 전염병 치료에 대한 성과를 조선에서 도입한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이를 통해 이전 시기에 큰 걸림돌이었던 약재 공급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약재가 부족했다면 빈민에게까지 쓸 처방을 위한 약재를 공급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상의 분석은 『해국지』가 18세기에 만들어진 문헌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히 있다. 청대 의학의 본격적인 수용은 정조 이후이므로 『해국지』가 만들어질 시기에는 아직 청대 의학의 색채가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이 시기는 의학에 있어 허준의 영향력이 매우 절대적인 시기였다. 실제로 앞서 살펴보았듯이 상비 처방의 구성에 있어 허준 저작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조선 후기 위정자들이 일반 백성 치료에 있어 어떤 부분에 가장 관심을 두었는지 엿볼 수 있는 자료라는 점 또한 분명하다.

III. 결론

활인서는 고려의 동서대비원을 계승하여 조선 시대 도성의 빈민 구료와 의식주 공급을 담당하는 관청이었다. 본고는 사료를 통하여 기존의 연구를 보완하고, 활인서의 의료기관적 성격에 중점을 두어 활인서의 상비처방을 분석하였다.

대비원, 혜민국, 제생원의 세 관청의 업무는 서민의 구료라는 면에서 업무 영역이 겹쳤다. 대비원과 다른 두 관청의 차이는 첫째 혜민국과 제생원 둘 다 대비원과 다르게 의료 관청에 속하였다. 둘째 대비원은 교육 기능이 없었다. 셋째 혜민국과 제생원은 약재를 관리하였다. 제생원은 동서대비원과 서민의 돌봄이라는 역할이 비슷하나, 환자가 아닌 기아 등에도 돌봄을 제공하는 차이가 있다. 이들 기관의 역할 중첩은 세종 때 제생원이 혜민국으로 합해지면서 정리되었다.

활인서의 상비처방은 기회비용과 발생 빈도의 측면에서 정부 기관의 선택과 집중을 거친 질환들이었다. 상비처방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았다. 첫째, 상비처방의 구성에 있어 허준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 예를 들어 승마갈근탕은 『언해두창집요』의 주요처방이며, 이성구고환, 대

81) 조선 전기 활인서의 상비방이 전하지는 않지만, 당시의 상비방은 관찬구급방에 수록된 상병과 그 치료 처방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다.

82) 대한감염학회. 『한국전염병사』. 서울:군자출판사. 2009:113-210.

83) 윤호, 임원준, 허중, 박안성, 권건 외 3인 편. 김동소 역주. 『역주 구급간이방언해 권1』. 서울: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7:142-153.

84) 임홍빈 역주. 『역주 본문온역이해방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 서울: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9:21-140.

85) 대한감염학회. op. cit. p. 125.

시호탕, 구미강활탕은 『신찬벽온방』 등의 저술에 근거를 두었다. 둘째, 열성유행병은 당시의 응급의료적인 면에 있어 사회적인 주요 문제였다. 셋째, 조선 후기에 열성유행병 치료에 있어서 이전 시대에 비하여 더욱 정교해진 치료 처방을 갖추게 되었다. 전염병 치료술의 발전과 약제의 원활한 수급이 이와 연관된다.

참고문헌

- 강위병 저. 박훈평 역주. 『역주 해국지』. 서울:피플. 2015:20, 65, 76, 110.
- 김두중. 『한국의학사』. 서울:탐구당. 1981:414-415.
- 김문웅 역주. 『역주 신선태을자금단 간이벽온방 벽온신방』. 서울: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9:93, 103, 144, 156, 174.
- 김신근. 『한의약서고』. 서울:서울대학교출판부. 1987:107-442.
- 김정화. 『조선 시대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1-33.
- 내의원 편. 박훈평 역주. 『역주 내의원식례』. 서울:피플. 2015:41.
- 대한감염학회. 『한국전염병사』. 서울:군자출판사. 2009:113-210.
- 박훈평. 「조선 시대 의학교과서 연구」. 한국의사학회지. 2016;29(2):4, 8, 11.
- 백철현. 「조선 시대의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지. 1995;4:56-60.
- 손홍렬. 『한국중세의 의료제도연구』. 서울:수서원. 1988:184-189, 264-265, 270.
- 윤필상, 홍귀달, 정미수, 김홍수 편, 전중욱 역주. 『국역 구급이해방』. 서울: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3:19-126.
- 윤호, 임원준, 허중, 박안성, 권건 외 3인 편. 김동소 역주. 『역주 구급간이방언해 권1』. 서울: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7:41, 85, 142-153.
- 윤호, 임원준, 허중, 박안성, 권건 외 3인 편. 남성우 역주. 『역주 구급간이방언해 권2』. 서울: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8:74, 239.
- 임홍빈 역주. 『역주 분문온역이해방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 서울: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9:21-140.
- 최창무. 「조선왕조전기의 구빈제도에 대한 연구」. 복지행정논총. 1991;1:138-139.
- 한규진. 「무격의 역할과 통제」.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2019;79:283-313.
- 허준 저. 안상우, 권오민, 박상영, 이정화 역. 『의성허준 저작집 5』.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14:5-165, 277-458.
- 허준 저. 안상우, 권오민, 박상영, 이정화 역. 『의성허준 저작집 6』. 대전:한국한의학연구원. 2014:17-227.
- 홍석모 저. 장유승 역해. 『동국세시기』. 과주:아카넷. 2016:227-228.
- 고종(1867). “육전조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e-규장각자료총서(2020.4.10.)
- 김재로(1746). “속대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e-규장각자료총서(2020.4.10.)
- 김종서(1452). “고려사절요”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2020.4.10.)
- 김치인(1784). “대전통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e-규장각자료총서(2020.4.10.)
- 승정원(1623-1894). “승정원일기”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DB(2020.4.10.)
- 실록청(1413-1935). “조선왕조실록”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DB(2020.4.10.)
- 양예수(1635). “의림촬요” 한국고전종합 DB(2020.4.10.)
- 조두순(1865). “대전회통” 규장각한국학연구원. e-규장각자료총서(2020.4.10.)
- 최항, 노사신, 강희맹(1485). “경국대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e-규장각자료총서(2020.4.10.)